

농협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

The impact of a positive change in life on the
education satisfaction of the women's colleg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양순미** · 한춘희*** · 양점남****

Soon Mi Yang · Choon Hee Harn · Jeom Nam Y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lative effect of the variables infecting on the education satisfaction of the Women's Colleg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established by nonghyup to help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irs.

By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 positive change in life through the education ($\beta=.28$), a attitude of sustainable education participation ($\beta=.20$), age ($\beta=.21$), whether or not in volunteer experience ($\beta=-.16$) affected on the women's the education satisfaction significantly. But an effect of the variable of evaluation on the college' education environment was not significant on it.

It is conclude that the education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should be focused to enhance a adjustment capability of the women and to induce a

* 본 연구는 2008년 농협중앙회 용역과제로 수행된 '농협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양순미 등, 2008b)의 일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농업연구사. e-mail: ysm@korea.kr

***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여성복지팀. e-mail: chharn52@yahoo.co.kr

****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여성복지팀. e-mail: ynyang2000@hanmail.net

change of life by supporting a sustainable education and a opportunity of affluent experience.

주요어(key words) : 결혼이주여성(marriage immigrant women),
교육만족(education satisfaction)

1. 서 론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70년 총 인구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5.9%이었다. 그러나 1995년에는 10.9%, 2000년에는 8.7%, 2006년에는 6.7%로서 농가인구비율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비율이 점점 감소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율은 적은 수의 농업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농업인구를 부양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비율상의 감소와 더불어 진행되는 규범적인 형태의 인구구조의 왜해이다. 즉 절대적으로 적은 농가인구중에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계 농업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훨씬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농촌에 새로 유입되는 젊은 연령층의 결혼이주여성과 2세대 아동들을 포함하는 이들 가족은 농촌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과소화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후계 구도를 유지하며, 그리고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유도할 핵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농촌·농업의 유지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양순미, 2006b, 2007, 2008a).

한편 우리사회에 국제결혼이 빠르게 증가함¹⁾에 따라 이들의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들이 일회적이고 전시적인 행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 많은 한계를 지니며 지속적·단계적인 맞춤형 교육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양순미, 2006b). 그런데 양순미(2008a)가 수행한 '농촌 다문화가족의 농업 및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업 활동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으로 가사 및 자녀양육의 문제(31.5%) 또는 농사일의 방법을 몰라서(20.2%)를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사회활동 및 취업활동상의 애로사항으로 한국어 능력 부족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어려움은 개인차원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으로 연결되어 급기야 이혼²⁾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개인차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서(양순미, 2006b)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부에서 농촌지역에 새로운 교육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나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재고 및 농촌지역의 거리 접근성을 염두에 두는 교육지원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의 맥락에서 농협의 다문화여성대학은 면단위 교육장소를 통해 9주~24주에 걸쳐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교육하면서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패키지 형태의 교육을 일단계에서 도입하고, 이 단계에서는 한국어

-
- 1) 우리사회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내국인 여성들의 농촌 남성들과 결혼기피, 성비불균형의 문제로 1990년대 초반에 한국남성이 중국조선족 여성과 결혼하면서 시작되었고(양순미, 2006a), 2007년에는 전체 결혼건수의 11.1%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결혼하는 남성들의 국제결혼율은 40%수준에 달하고 있다.
 - 2)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국제결혼한 부부의 이혼건수는 5,794건이며, 2007년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국제결혼한 전체 건수에 비교해 볼 때 이의 19.9%에 해당된다.

교육에 기술과 영농교육을 병합하여 보다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협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만족 정도와 이에 작용하는 변인들을 규명해 봄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여성대학 및 관련 사회 교육의 발전적인 방안들을 합의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농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200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사회에 국제결혼³⁾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다문화가족이 새로운 가족형태로 등장하면서 이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관심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은 단순히 사회통합의 차원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집단이다. 이들은 미래 농업과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해 나아갈 인적자원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은 단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자활·자립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양순미, 2006b, 2006c).

그런데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관심은 정부중앙부처 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의 주도하에서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면서

3) 국제결혼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한국인여성이 외국인남성과 결혼하는 유형과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유형이다.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은 대다수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유형으로서, 본 보고서에서 국제결혼은 이의 유형을 합의한다.

시작되었다. 이들 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말과 글을 익히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으나, 운영 실무자의 관심과 문제의식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고,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 일회적이고 전시적이며 동원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서(양순미 2006b: 양순미 외, 2008b)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가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의 효시는 2006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20여 개소에서 운영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 할 수 있으며, 이어 농림부가 2007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30개소에서 찾아가는 방문도우미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2007년에 여성가족부는 농림부의 사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였으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개칭하여 전국 80개소로 확장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역시 내용적으로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기관에 따라 우리말과 글에 치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문화체험과 일회성 행사로 치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나 요리실습, 또는 집단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들 사업을 기존에 결혼이주여성을 교육해 왔던 경험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프로그램 내용은 거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업지역이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은 매우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김갑현, 2007).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지원시스템들은 농촌지역의 교육수혜의 사각지대화, 거리접근성의 한계, 과소화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농촌사회의 인력구도에 대비하여 미래 성장동력원의 인적자원화와 같은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농림부 또한 2008년 전국 9개소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영농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교육대상을 선발하는 지역범주가 광범위하고, 교육내용도 상당부분 교양이나 문화체험을 포함하고 있어서 영농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데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시스템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08년 전국 13개소, 잠정적으로 2009년 전국 50개소 시범사업을 계획하면서 다문화여성대학⁴⁾ 사업을 착수하였다. 농협중앙회의 지원사업은 면단위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거리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어 교육을 기본으로 진행하면서 다양한 생활문화교육을 매회 병행하고 있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고 새로운 것을 체험하도록 패키지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여성대학이 농촌지역에서 효율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고 농촌 농업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서비스 시스템으로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13개 시범사업 대상 지역 교육생들의 교육만족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평가해 보고자 한다.

4) 다문화여성대학은 농협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농협에서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교육 서비스 시스템을 의미한다. 2008년 농협중앙회의 다문화여성대학 사업지침에 의하면 다문화여성대학은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문화를 교육함으로써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이주 여성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능력 및 자질을 함양하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통해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운영 목적이 있다.

2.2. 교육만족도의 개념 및 측정

사전적으로 만족(Satisfaction)이란 ‘마음에 흡족함’이라는 뜻으로서(이희승, 1991), Campbell(1965)은 만족은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상태라고 정의하였다.

Astin(1993)에 의하면, 교육만족도는 피교육생들의 교육경험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첫째, 투입-환경-결과(IEO, Input-Environment-Output)라는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교육현장 전반을 환경 변인으로 정의하고, 그것과 교육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배진숙(1995)에 의하면 교육만족이란 학습자가 학습을 함으로써 성취, 인정, 보상 등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감성 및 가치 체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피교육자들의 교육 만족도는 교육의 질과 서비스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객관적인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교육만족도는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여성대학에서 교육경험을 통해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감정상태이며,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의 질과 서비스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이상미(2004)에 의하면 교육만족도 또는 피교육자의 교육서비스 만족도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교육학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사회복지관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교육에 관한 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박성배, 2001; 박미경, 2001; 정해옥, 2003), 소비마케팅 차원의 교육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김성철,

1995),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유성아, 2005)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이 교육만족도를 구성하는 개념으로 교육내용, 교육기법, 교육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어 온 이래 이를 측정하는 척도의 단일차원과 다차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단일차원의 척도는 각 변수들의 개념에 내포된 다양한 현상을 하나로 축약해서 제시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켜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화된 점수를 통해 각 개념이 지니는 의미를 함축적이고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반면 다차원 척도의 경우, 동일한 척도라 할지라도 연구자나 척도가 이용되는 대상에 따라 하위요인이나 문항구성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관된 경향을 추론하는데 한계를 지닌다(양순미, 2008c). 단일차원의 척도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문항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만족도를 측정하는 단일차원의 단일문항의 척도로는 Rose(1955), Wessman, Streib(1956), Cantrill(1965) 등의 척도(조완규, 1993, 재인용)가 잘 알려져 있다.

2.3. 교육만족도에 관련된 변인

Astin(1993)은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수,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생지원 서비스, 시설교육여건, 교과목 이수 기회,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학교의 변화 전망, 교육행정에 대한 믿음, 다양성 추구, 교육자원과 사회적 평판 등 교육에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접근하였다. 대학서비스가 학생만족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엄은주, 2001)에서는 독립변수인 대학서비스의 구성요소로 대학의 시설, 수업, 직원서비스, 행정지원과정, 21세기 대학의 모습을 선정하여

이들 요인들이 학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영숙(1999)은 사회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시설 및 교통이용의 편리함, 직원의 친절, 프로그램의 종류, 강사의 강의내용과 수준이라고 하였다. 김미란(1999)에 의하면 교육활동을 통해 수혜자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교육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은 것이 된다고 하였다. 강철용(1999)은 참여자의 학습준비 관심도,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기법, 교육환경의 적절성, 강사수준이 교육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학습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교육내용과 기법, 교육환경과 강사수준에 대해 높게 평가할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Tinto(1987)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상호작용의 부족은 피교육자의 불만족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고객만족에 인구통계학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Pfaff, 1972)에 의하면 고객만족은 연령, 개인적 능력과 비례하고 학력과 가계수입에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여성대학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다문화적인 요인 및 특수성과, 둘째, 교육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한 수혜자의 적응이나 새로운 지식 정보의 향상 등 교육참여 동기의 충족 정도가 교육만족에 미치는 효과 규명의 필요성, 셋째 Lemon 등(1972)의 사회활동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재확인하는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하며, 역할지지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은 생활만족도를 높게 유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유성호 등, 2000, 재인용)는 주장에 비추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 사회활동 경험 여부가 다문화여성대학 교육만족에 미치는 효과 규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다문화여성대학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주여성의 사회인구

학적인 특성 요인(학력수준, 거주기간, 농사일 참여정도, 가사일 참여정도), 사회활동 경험여부(학습단체 참여, 자원봉사활동), 문화적 격차에 따른 적응 스트레스 정도,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및 태도(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향후 다문화여성대학 참여 여부), 교육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 정도를 설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2008년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13개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던 다문화여성대학 교육과정에 교육생으로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이다. 조사는 2008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설문조사지에 의한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과정에서 한국어로 완성된 설문지를 영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총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된 3종류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전체 총 269명의 교육생 중 72.9%에 해당하는 196명이 조사에 응하였으며, 이 중 연구자가 교육현장에서 직접 조사하여 회수한 설문지는 41.35%에 해당하는 81부이었고, 운영자가 조사를 배포하여 회수한 후에 우편 송부한 설문지는 115부이었다.⁵⁾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경험에 의하면 조사시간은 개인에 따라 약 10분에서 60분까지 소요되었으

5) 구자가 현장에서 조사한 집단의 자료와 운영자가 배포하여 회수송부한 집단의 자료의 일부 변인을 t-test한 결과, 교육만족도($t=-1.24$), 교육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 정도($t=.89$),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t=-1.07$) 변인은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반면 문화격차에 따른 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t=2.80$ 으로서 $p=.01$ 수준에서 연구자가 현장에서 조사회수한 집단의 평균정도가 더 높았다.

며, 이와 같은 차이는 개인의 인지 및 문항이해 정도에 따른 개인간 편차가 큰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2. 척도의 구성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에 대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지하는 총체적인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Cantrill(1965)의 척도(조완규, 1993, 재인용)와 양순미(2006a)의 연구를 참고하여 단일차원의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매우 불만족(1)'에서부터 '매우 만족(5)'까지 5점 서열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결혼생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느끼는 적응상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는 Sandhu와 Asrabadi(1994)가 외국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IS」를 수정하였고 지각된 차별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 역할 부담 등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Likert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적응 상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다문화여성대학 참여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변화 정도를 묻는 척도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한국어 능력 향상,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자신감, 가족관계 향상, 자녀교육 지식 향상, 사회활동 자신감, 문화 및 여가의 다양성 향상, 지역사회 이해 등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Likert로 작성하였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구성된 문항은 역 코드 하여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 록 교육

참여에 따른 정적인 생활상의 변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척도는 농림부(2008)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언어적인 어려움, 교육내용의 어려움, 운영자의 친절한 태도 정도, 교육내용의 다양성, 교육시간의 적절성 등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Likert로 작성하였고, 부적절한 방향으로 구성된 문항은 역 코딩하여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환경 및 과정에 대한 평가 정도가 긍정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활동 경험 여부(학습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향후 다문화여성대학 교육 참여 여부를 묻는 척도는 양순미(2008a)의 척도를 이용하여 예, 아니오의 명목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묻는 질문문항 중 학력, 농업 및 가사활동 참여 시간은 서열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기타 컴퓨터 보유 여부나 국적취득 여부 등은 명목형 척도로, 나이와 거주기간 등은 개방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3.3. 자료의 분석

총 196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량(빈도, %, 평균값)분석, t-test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고찰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다문화여성대학 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전체의 44.62%로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필리핀이 16.41%, 일본이 8.71%, 중국 조선족이 8.21%, 중국 한족이 7.18%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은 36.36%이었다.

이주여성의 학력수준은 평균 3.84로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이며 고등학교 졸업이 38.10%, 중학교 졸업이 20.63%, 전문대학 졸업이 13.76% 순으로 높았다. 남편의 학력수준은 평균 3.75로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이며 고등학교 졸업이 43.90%, 중학교 졸업이 18.29%, 대학교 졸업이 12.80%이었다. 한편 이주여성과 남편의 학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⁶⁾ 양순미(2007)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근 수년 사이에 유입이 증가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수준이 그 이전에 유입한 필리핀 또는 일본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수준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데서 비롯한 결과로 사료된다.

응답자의 가정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71.96%로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종교는 불교가 전체 30.85%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이 17.55%이었으며 종교가 없다는 경우도 17.55%이었다. 가족형태는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확대가족이 35.05%로 가장 높았고,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6.29%, 부부와 시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16.49%,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가 10.82%이었다. 즉 51% 이상의 결혼이주여성

6) 이주여성과 남편의 학력수준을 paired t-test한 결과: 평균 0.20, 표준오차 0.13, t값 1.52(none significant).

들이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27.6%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는 요인으로 부모부양의 방식을 지적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여성대학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일 평균 농사일 참여 시간에 대해 37.71%가 농사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1-2시간 일하는 경우는 27.43%, 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24%로 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일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전체 180명이 응답하였으며, 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45.0%로 가장 높았으며 3-4시간이 30.0% 수준이었다(표 1).

〈표 1〉 다문화여성대학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출신국가	중국(조선족)	16 (8.21)	영농형태	시설원예	9 (5.33)	
	중국(한족)	14 (7.18)		미백	49 (28.99)	
	베트남	87 (44.62)		축산	12 (7.1)	
	필리핀	32 (16.41)		과수	17 (10.06)	
	캄보디아	14 (7.18)		밭작물, 어업 등	82 (48.52)	
	태국	8 (4.10)		계	169 (100)	
	일본	17 (8.71)		일 평균 농사일 참여시간	하지않는다	66 (37.71)
	기타	7 (3.59)			1-2시간	48 (27.43)
	계	195 (100)			3-4시간	19 (10.86)
한국국적 취득여부	취득	68 (36.36)	5시간이상		42 (24.00)	
	미취득	119 (63.64)	계		175 (100)	
	계	187 (100)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컴퓨터 보유여부	예	136 (71.96)	일 평균 가사일 참여시간	하지않는다	6 (3.33)	
	아니오	53 (28.04)		1-2시간	39 (21.67)	
	계	189 (100)		3-4시간	54 (30.00)	
종교	가톨릭	33 (17.55)		5시간이상	81 (45.00)	
	개신교	17 (9.04)		계	180 (100)	
	통일교	27 (14.36)		결혼 이주 여성 (M 3.84, S.D.1.35)	무학	10 (5.29)
	불교	58 (30.85)			초등학교	19 (10.05)
	무교	33 (17.55)			중학교	39 (20.63)
	기타	20 (10.65)			고등학교	72 (38.10)
	계	188 (100)			전문대학	26 (13.76)
	가족형태	부부	21 (10.82)		대학교	18 (9.52)
부부+자녀		51 (26.29)	대학원		5 (2.65)	
부부+시부모		32 (16.49)	계		189 (100)	
부부+자녀+시 부모		68 (35.05)	교육 수준	무학	10 (6.10)	
기타		22 (11.35)		초등학교	20 (12.20)	
계		194 (100)		중학교	30 (18.29)	
남편과의 문화적 차이 인지 정도 (복수응답)		가사분담방식		39 (17.65)	고등학교	72 (43.90)
	부모부양방식	61 (27.60)		전문대학	8 (4.88)	
	자녀양육방식	37 (16.74)		대학교	21 (12.80)	
	식생활수준	47 (21.27)	대학원	3 (1.83)		
	주거생활양식	37 (16.74)	계	164 (100)		
	계	221 (100)	남편 (M 3.75, S.D.1.38)			

4.2. 다문화여성대학 교육과정 특성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기간은 9주에서 24주 이내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지역여건이나 교육생의 요구에 따라 주 1회 또는 주 2회씩 진행되고 있었다. 전체교육 횟수는 15회부터 30회로, 평균 교육시간은 3.38시간이었다.

다문화여성대학에서는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전체 수업을 외부강사로 활용하는 기관은 대구논공농협, 진주진양농협, 괴산불정농협, 문경산동농협, 이천울면농협, 무주구천동농협, 충주양성농협으로 7개소로 나타났으며, 75%정도 외부강사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곡성옥과농협에서는 농협내부직원들이 한글수업 등에 보조교사로 참여하고 있었다.

운영자가 직접 한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오산화성태안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다문화여성대학들은 전문한글강사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한글강사는 YWCA나 지역사회문화회관 등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강사들이었다.

교과구성 및 교과목편성은 실시기관 13개소 모두에서 1, 2교시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한국어교육을 필수과목으로 매회 실시하였으며 2교시는 다양한 체험위주의 학습,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교양학습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여성대학 교육 중 1회 또는 2회 이상은 야외활동으로 가족소풍, 문화선진지 방문, 농협연수원 일일 연수 참여, 고적지견학 등을 실시하여 거주지 외에 한국의 다른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도록 돕고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족과의 관계개선과 더불어 가족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13개 다문화여성 운영지역과 교육기간 및 교과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4.3. 다문화여성대학 교육참여 실태와 교육만족

4.3.1. 교육참여 실태

다문화여성대학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참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육참여의 어려움 요인으로 33.14%가 농사 및 가사 일에 대한 부담을, 26.04%가 자녀양육문제를, 21.89%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10.06%가 가족의 반대를 주요 사유로 지적하였다.

이전의 교육을 중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 28.13%가 집안 일을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17.97%가 자녀양육문제를, 13.28%가 직장 일을, 11.72%가 임신과 출산의 사유를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응답자의 57.82%가 집안 일 및 육아로 인해 교육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여성대학 교육에 대한 정보습득의 경로는 농협의 홍보를 통해서가 50.44%이었으며, 행정기관을 통해서 13.16%, 남편 및 가족·같은 국적의 친구인 경우가 각각 11.84%이었다.

〈표 2〉 다문화여성대학 교육기간 및 내용

지역	교육기간 및 시간			교과편성							
달성 논공	교육기간	총교육 시간	교육횟수 (주단위)	세부교과내용							
	16주 (7/29-11/11)	45	15(1)	한글	노래 교실	생활 음식	특별 활동	농협 인식	가족 사랑	기타	
				21.3%	8.9%	16.7%	20.0%	6.7%	11.1%	15.3%	
황성 동형성	교육기간	총교육 시간	교육횟수 (주단위)	세부교과내용							
	9주 (9/2-10/28)	72	15(1)	한글 /컴퓨터	요리	노래 교실	특별 활동	야외 체험	기타		
				25.0%	9.7%	12.5%	28.2%	19.4%	5.2%		
이천 울면	교육기간	총교육 시간	교육횟수 (주단위)	세부교과내용							
	15주 (7/22-10/31)	96	21(2)	한글	동요	수학	컴퓨터	가족 관계	요리	기타	
				15.6%	7.5%	8.3%	18.8%	10.4%	12.5%	26.9%	
오산 화성태안	교육기간	총교육 시간	교육횟수 (주단위)	세부교과내용							
	13주 (9/4-11/25)	72	24(2)	한글	동요	문화 탐방	가족 관계	건강	문화	기타	
				43.1%	7.4%	8.3%	16.3%	6.0%	7.1%	11.8%	
괴산 불정	교육기간	총교육 시간	교육횟수 (주단위)	세부교과내용							
	9주 (10/2-11/27)	53	15(1)	한글	부부	봉사 활동	문화	문화 탐방	기타	-	
				48.1%	5.7%	5.7%	11.3%	15.1%	14.1%	-	
충주 양성	교육기간	총교육 시간	교육횟수 (주단위)	세부교과내용							
	8주 (9/10-10/29)	51	13(1)	한글	부부 참여	한국 이해	문화 탐방	컴퓨터	기타	-	
				34.3%	11.8%	12.7%	21.6%	2.9%	16.7%	-	
보은 남보은	교육기간	총교육 시간	교육횟수 (주단위)	세부교과내용							
	13주 (9/9-11/26)	53	15(1)	한글	동요	부부 참여	한국 이해	문화	문화 탐방	기타	
				28.3%	5.6%	11.3%	14.2%	14.2%	15.1%	11.3%	

무주 구천동	교육기간	총교육 시간	교육횟수 (주단위)	세부교과내용						
	13주 (8/13-11/1)	66	15(2)	한글	컴퓨터	부부 교실	농업 기술	실생활	미술 치료	기타
				20.5%	8.3%	15.9%	6.1%	24.2%	7.6%	17.4%
곡성 옥과	교육기간	총교육 시간	교육횟수 (주단위)	세부교과내용						
	15주 (9/5-12/11)	69	23(1)	한글	동요	문화/ 교양	상담/ 치료	요리	가족 관계	기타
				17.1%	6.5%	25.7%	8.7%	7.2%	9.7%	25.1%
화순 화순	교육기간	총교육 시간	교육횟수 (주단위)	세부교과내용						
	11주 (9/23-12/4)	66	22(2)	한글	컴퓨터	특별 활동	-	-	-	-
				39.1%	6.8%	54.1%	-	-	-	-
문경 산동	교육기간	총교육 시간	교육횟수 (주단위)	세부교과내용						
	9주 (9/2-10/28)	53	15(2)	한글	문화 체험	부부 교육	컴퓨터	미술 활동	기타	-
				19.6%	21.1%	6.7%	7.8%	16.7%	28.1%	-
진주 진양	교육기간	총교육 시간	교육횟수 (주단위)	세부교과내용						
	24주 (7/1-12/9)	74	26(1)	한글	동요	문화 탐방	가족 관계	건강	컴퓨터	기타
				45.0%	4.0%	12.2%	15.8%	5.8%	5.4%	11.8%
통영 한산	교육기간	총교육 시간	교육횟수 (주단위)	세부교과내용						
	14주 (8/26-12/2)	66	15(1)	한글	전통 음악	가족 관계	취미 교실	-	-	-
				27.2%	14.8%	10.3%	47.7%	-	-	-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여성대학에 참가한 동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싶어서 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의 31.91%,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가 25.84%, 재미있을 것 같아서는 10.94%, 평소에 교육활동이 부족해서가 10.34%이었다. 다문화여성대학에 참여를 결정하

는 과정에서 고려한 요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33.04%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활동에 대한 개인적 욕구가 32.60%, 이어서 주변인과의 관계 고려가 15.42%, 무료교육이 11.01%이었다(표 3).

〈표 3〉 다문화여성대학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참여 실태

구 분	교육 참여의 애로사항								
	농사 및 가사 일이 많음	자녀양육 문제	의사소통 어려움	가족반대	기타	계			
빈 도(N)	56	44	37	17	15	169			
백분율(%)	33.14	26.04	21.89	10.06	8.87	100			
구 분	이전의 교육 중단 경험의 사유								
	임신과 출산	경제적 이유	직장일	자녀 양육	집안 일	수업 내용 어려움	가족 반대	기타	계
빈 도(N)	15	6	17	23	36	5	7	19	128
백분율(%)	11.72	4.69	13.28	17.97	28.13	3.91	5.47	14.83	100
구 분	다문화여성대학에 참가한 동기(복수응답)								
	한국생활 적응	새로운 것을 학습	평소에 부족한 교육활동	사회활동을 위해	권유에 의해	재미 있을거 같아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계	
빈 도(N)	85	105	34	26	18	36	25	329	
백분율(%)	25.84	31.91	10.34	7.90	5.47	10.94	7.60	100.00	
구 분	교육정보수집경로(복수응답)								
	마을이장, 부녀회정보	농협	행정기관	남편/가족	같은 국적 친구	주변이웃	계		
빈 도(N)	14	115	30	27	27	15	228		
백분율(%)	6.14	50.44	13.16	11.84	11.84	6.58	100.00		
구 분	다문화여성대학 참여결정 과정에서 가장 고려한 점(복수응답)								
	프로그램 다양성	무료교육	개인욕구 충족	주변인과의 관계	별다른 사유 없음	계			
빈 도(N)	75	25	74	35	18	227			
백분율(%)	33.04	11.01	32.60	15.42	7.93	100.00			

이에 다문화여성대학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 참여 동기는 Houle (1961)의 3가지 동기 유형⁷⁾ 중에 학습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교육의 특성중의 하나는 다양성으로서(박미경, 2001),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여성대학의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요 요인으로 고려한 것은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3.2. 교육만족도의 일반적인 특성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지한 다문화여성대학 교육만족도에 관한 일반적인 경향은 <표 4>와 같다. 다문화여성대학 교육생들은 교육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41.53%, 대체로 만족이 38.46%, 보통이 14.36%, 매우 불만족 또는 대체로 불만족이 5.65%이었다. 평균은 4.11로서 백분위 82.2점이며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다문화여성대학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지한 교육만족 경향

구 분	빈도 (%)						평균(S.D.)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정 도	9(4.62)	2(1.03)	28(14.36)	75(38.46)	81(41.53)	195(100)	4.11(1.00)

4.3.3. 교육만족도 관련변인의 일반적인 특성

다문화여성대학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연령은 평균 30.46세이었다. 거주기간은 평균 51.13개월로서 4년 3개월 정도 한국에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지하는 문화적 격차에 따른 적

7) Houle(1961)는 성인교육 참여동기 유형을 목표지향적(goal-oriented) 참여자, 활동지향적(activity-oriented) 참여자, 학습 지향적(learning-oriented) 참여자로 분류하였다.

응 스트레스는 총 55.0점에서 평균 31.5점 수준이었으며, 5점 단위로 환산했을 경우 2.86점으로서 보통수준 이하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는 총 30.0점에서 평균 20.89점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5점 단위로 환산했을 경우 평균 3.48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여성대학의 참여로 인해 한국어 능력 향상, 가족관계의 향상,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상의 자신감 증가, 의사소통의 자신감 증가, 자녀양육의 도움 등의 긍정적인 생활상의 변화를 총 45.0점에서 평균 32.80점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5점 단위로 환산했을 경우 평균 3.64점으로서 보통 이상 수준에서 생활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5).

〈표 5〉 결혼이주여성의 교육만족 관련변인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통계량		
	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min)-최대값(max)
연령	30.46	7.95	20-52
학력수준	3.84	1.35	1-7
거주기간	51.13	42.07	1-239
문화적 격차에 따른 적응 스트레스	31.50(2.86)	8.98(0.82)	11(1)-55(5)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정도	20.89(3.48)	3.43(0.57)	15(2.5)-30(5)
교육참여에 따른 긍정적인 생활변화 정도	32.80(3.64)	6.07(0.67)	13(1.4)-45(5)

* ()는 단위평균으로 환산된 점수

4.4. 다문화여성대학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4.1. 교육만족도와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지한 다문화여성대학에 대한 교육만족도와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6), 독립변인들간에 .02에서 .29 수준으로 상관되어 있어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교육만족도는 교육참여에 따른 긍정적인 생활변화 정도($r=.17$)와 정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문화격차에 의한 적응스트레스 정도($r=-.16$)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

〈표 6〉 다문화여성대학 결혼이주여성의 교육만족도와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1. 교육만족	1.00							
2. 학력수준	.05	1.00						
3. 거주기간	-.07	.29***	1.00					
4. 농사활동시간	-.10	-.13	.23**	1.00				
5. 가사활동시간	.03	-.03	.19**	.26***	1.00			
6. 문화격차에 의한 적응스트레스 정도	-.16*	-.04	-.09	-.15*	-.05	1.00		
7.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정도	.09	.08	.15*	-.04	.13	-.03	1.00	
8. 교육참여에 따른 긍정적 생활 변화 정도	.17*	.10	-.05	.02	.16*	.27***	.26***	1.00

* $p < .05$ ** $p < .01$ *** $p < .001$

4.4.2.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효과 및 상대적인 영향력

(1)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효과

다문화여성대학 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지한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인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두 1.64~1.71이며, 각 변인들의 분산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을 확인한 결과 모두 1.3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여성대학 교육만족도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모델의 24%를 설명하고 있었다(표 7).

분석결과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여성대학 교육만족도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육참여에 따른 긍정적인 생활변화 정도($\beta=.28$)이며, 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교육참여 의향($\beta=.20$), 자원봉사 활동 경험여부($\beta=-.16$)가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즉 다문화여성대학 교육참여로 인해 가족관계의 향상,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상의 자신감 증가, 의사소통의 자신감 증가, 자녀양육의 도움 증가 등 긍정적인 생활상의 변화를 크게 인지할 수록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교육의 개념에는 사회교육의 제반 활동들이 개인의 성장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어야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박미경, 2001)고 전제했을 때 본 연구에서 밝혀진 다문화여성대학 교육 참여에 따른 긍정적인 생활변화 정도가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여성대학 교육 만족도에 가장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결과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경험을 학습하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 동기나 요구에 부합하게 다문화여성대학이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통한 일상생활의 태도 및 지식의 변화 정도를 크게 인지할 수록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다문화여성대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이주여성은 그렇지 않은 이주여성에 비해 교육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문화여성대학이 사회교육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특성(박미경, 2001)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이주여성은 경험한 이주여성에 비해 교육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이주여성 보다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이주여성에게 있어서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은 새로운 경험으로 작용하며 기대감과 충족감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산간오지나 어촌 등 교육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와 사회통합을 위한 잠재적인 능력을 향상하여 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 결과(강철용, 1999; Pfaff, 1972; Tinto, 1987)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교육환경, 학력수준, 가사활동참여시간 변인 등은 교육만족에 무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다문화여성대학 교육환경 평가 정도는 교육만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문화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가 가사활동 참여정도 변인을 매개하고, 교육참여에 따른 긍정적인 생활 변화가 문화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나 다문화여성대학 교육환경 평가 변인⁸⁾을 매개함으로써 이들 변인들이 교육만족도에는 직접적인 효과를 갖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8) 교육환경평가 변인을 구성하는 6개의 하위개념들이 교육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의 다양성 정도($p=.05$ 수준)와 교육운영자의 친절한 태도 정도($p=.001$)만이 교육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표 7), 모델 2에 비해 모델 3의 설명력은 .064%증가하였으며, 모델 4에 비해 모델 5의 설명력은 .062%증가하였다. 즉 사회활동경험과 관련된 요인이나 교육에 따른 긍정적인 생활변화 정도가 다문화여성대학의 직접적인 특성을 함의하는 교육환경에 관한 요인이나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적인 특성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보다 그들의 교육만족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거주기간 변인은 사회활동 변인들이 투입된 모델 3에서는 유의성이 소멸했다가 교육환경평가 및 태도변인이 투입된 모델 4에서는 다시 유의성이 출현 한 후에 모델 5에서 유의성이 다시 소멸하였다. 또한 학습단체 참여여부 변인은 모델 3과 모델 4에서 유의성이 지속되다가 모델 5에서 유의성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이나 학습단체 참여 여부 변인은 직접적으로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교육태도변인이나 교육참여에 따른 생활변화 정도 변인을 매개하면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 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여성대학 교육만족도 정도와 이에 작용하는 변인들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주요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여성대학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참여동기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싶어서 31.91%, 한국생활의 적응을 위해서가 25.84%로서 학습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이 다문화여성대학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었다. 그런데 위계적인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여성대학 교육만족도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육참여에 따른 긍정적인 생활변화 정도($\beta = .28$)로서 이는 다문화여성대학 교육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의 교육참여동기와 부합하며 이의 욕구를 충족시킨데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7〉 다문화여성대학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만족도에 작용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변 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B(β)				
교육수준	.02(.02)	.02(.02)	.02(.02)	.02(.03)	-.00(-.00)
거주기간	-.00(-.18)*	-.00(-.18)*	-.00(-.16)	-.00(-.19)*	-.00(-.15)
농사활동참여시간	-.08(-.10)	-.07(-.10)	-.08(-.11)	-.09(-.12)	-.09(-.13)
가사활동참여시간	.13(.13)	.13(.13)	.11(.11)	.10(.10)	.06(.07)
문화격차에 따른 적응 스트레스 정도		.00(.02)	-.00(-.02)	-.00(-.02)	-.01(-.08)
학습단체활동 참여여부#			.36(.19)*	.36(.20)**	.26(.14)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			-.37(-.21)**	-.33(-.19)*	-.30(-.16)*
향후 다문화여성대학 참 여의향#				.96(.22)**	.87(.20)**
다문화여성대학 교육환 경 평가 정도				.02(.08)	.01(.02)
교육참여에 의한 긍정적 생활변화 정도					.04(.28)***
Intercept	4.12***	4.04***	4.16***	2.84***	2.32***
R ² (R ² 증가량)	.050(-)	.051(.001)	.115(.064)	.174(.059)	.236(.062)
F	2.02	1.62	2.78**	3.45***	4.11***
Durbin-Watson	1.67	1.67	1.64	1.66	1.71

참여경험 또는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1로 더미, * p <.05 ** p <.01 *** p<.001

따라서 결혼이민자인 이주여성들이 새로운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사회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도록 교육내용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교육운영담당자는 교육과정중에 중단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로서 신뢰를 형성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이주여성의 교육만족도가 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교육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이 산간오지나 어촌 등 교육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와 사회통합을 위한 잠재적인 능력을 향상하여 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위계적인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여성대학 교육만족도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육참여에 따른 긍정적인 생활변화 정도($\beta = .28$)이며, 이어서 향후 계속적인 교육참여 의향($\beta = .20$),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beta = -.16$)가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학력수준, 문화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변인은 교육만족에 무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문화여성대학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만족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나 이질적인 문화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그 자체적인 요인 보다 교육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 향후 계속적인 교육참여 의지 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목표와 내용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 요구나 참여동기를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참여자들의 생활의 변화를 유도하고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실천가능한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어서 본 연구에 비추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및 제한점을 기술하면 첫째, 다문화여성대학을 비롯한 결혼이주여성 관련교육은 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에 따른 생활의 변화나 교육의 효과를 규명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선행연구 고찰 결과 교육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거의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부 선행연구들은 교육환경적인 측면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교육만족도화 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실행정도나 생활의 변화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척도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 따른 긍정적인 생활 변화 정도를 독립변인으로, 교육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모형을 설정하였으나 이에 관한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교육만족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교육에 따른 태도변화정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국 13개 면단위 지역에서 이루어진 농협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규명된 결과들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 강철용. (1999). 실직자 재취직 교육훈련과정의 질적수준과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갑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 지역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 (1999). 교육서비스가 학생만족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철. (1995).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중앙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농림부. (2008).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연구보고서.
- 박성배. (2001).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2001). 지역사회복지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동기와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진숙. (1995). 사회교육담당자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2006a).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양순미. (2006b).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정책의 모색. *한국자치행정연구*, 5(5), 111-128.
- 양순미. (2006c). 농촌의 국제결혼 실태, 전망 및 함의. 농촌 국제결혼 정착방안 세미나 자료집. 농촌진흥청.
- 양순미. (2007).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관련 변인이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17(2), 5-39.
- 양순미. (2008a). 농촌 다문화가족의 농업 및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8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시험연구보고서.
- 양순미·김은숙·강기숙. (2008b). 농협 다문화여성대학의 운영실태 및 발전 방안 개발 연구. 농협중앙회 용역연구보고서.

- 양순미. (2008c).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교재 개발(예측요인 효과분석을 활용한다문화교육 연구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가족생활 행복에 작용하는 요인』에 대한 방법론적 조망). 교육과학부 연구용역 보고서(서울대학교 주관 수행).
- 엄은주. (2001). 대학서비스가 학생만족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지방대학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미. (2004). 성인교육프로그램에서의 교육서비스 만족도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아. (2005). 초·중등학생이 지각한 유비쿼터스 교육환경과 자기조절학습 및 교육만족도와의 관계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성호 외. (2000).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치.
- 이희승. (1991).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 정영숙. (1999). 사회교육 참여동기 및 만족요인 분석.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옥. (2003). 기업교육에서 학습만족도와 성취도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완규. (1993). 농민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연구보고서.
- Astin A. (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scico: Jossey-Bass Publishers.
- Campbell, P. (1965).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Level and Standards of Liv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57(4). 263-266.
- Hole, C. O. (1961). *The Inquiring Mind*.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Tinto, V. (1987).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b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faff, A. B. (1972). An Index of consumer satisfaction, in processing, M. Venkatesan, ed. Iowo city: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713-737.

논문투고일: 2009. 2. 24

1차수정일: 2009. 3. 16

2차수정일: 2009. 5. 25

게재확정일: 2009. 5. 29